

제1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배고플 때 비빔 라면을 먹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처음 비빔 라면 한 개를 먹을 때는 상당히 맛있습니다. 두 개째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처음 한 개 먹을 때만은 못합니다. 세 개째라면 어떨까요? 배가 불러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먹게 되니 맛을 거의 못 느낄 것입니다. 만족감이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한 번 더 이용할 때마다 생기는 만족도를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데, 그 이용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만족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켜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뷔페입니다. 뷔페에서는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접시 먹지 못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하지 못한 채 뷔페에서 나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은 이후에는 더 먹어 봤자 만족감만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뷔페에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이 있을 때 각 상품의 1원어치 한계 효용이 똑같으면 한 상품을 덜 소비하는 대신 다른 상품을 소비해도 총 효용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상품이 있을 때 각각의 한계 효용이 균등하면 소비자는 최대의 효용을 얻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장소를 편의점으로 옮겨 볼까요? 8,000원을 사용하여 빵과 우유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이때 빵의 가격은 500원, 우유의 가격은 1,000원, 처음 먹는 빵의 한계 효용은 800, 처음 먹는 우유의 한계 효용은 2,000이라고 합시다. 빵의 1원당 한계 효용은 800을 500으로 나눈 1.6이 되고 우유의 1원당 한계 효용은 2,000을 1,000으로 나눈 2가 됩니다. 즉 1원당 한계 효용은 우유가 크므로, 먼저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을수록 한계 효용은 점점 작아지게 돼, 우유의 1원당 한계 효용은 결국 처음 먹는 빵의 1원당 한계 효용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빵을 먹으면 같은 금액으로 우유를 먹는 것보다 총 효용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빵을 한 개 더 먹을 때마다 한계 효용이 50씩 낮아지고 우유를 한 개 더 먹을 때마다 한계 효용이 200씩 낮아진다는 조건을 더한다면, 빵을 6개, 우유를 5개 먹을 때 총 효용이 가장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뷔페에서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만족도가 극대화됩니다. 아무리 초밥을 좋아한다고 해도 계속 먹으면 한계 효용이 줄어들고, 결국 다른 음식을 처음 먹을 때의 효용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효용이 초밥의 효용보다 커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경제학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중간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③ 청중의 학습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발표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함으로써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이 발표 유인물로 활용한 자료이다. 자료를 보며 발표를 들은 청중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자료 2〉

빵	1	2	...
한계 효용	800	750	...
우유	1	2	...
한계 효용	2000	1800	...

〈자료 3〉

(우유, 빵)	(1, 14)	(2, 12)	(3, 10)	(4, 8)	(5, 6)	(6, 4)
총 효용	(2000, 6650)	(3800, 6300)	(5400, 5750)	(6800, 5000)	(8000, 4050)	(9000, 2900)
계	8,650	10,100	11,150	11,800	12,050	11,900

- ① 〈자료 1〉을 활용하면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
- ② 〈자료 1〉을 활용하면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
- ③ 〈자료 2〉를 활용하면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
- ④ 〈자료 3〉을 활용하면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
- ⑤ 〈자료 3〉을 활용하면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청자 1: 발표의 서두에서 청중들의 호기심을 효과적으로 유도해서 좋았어. 하지만 발표 주제를 명시적으로 전달한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 점은 아쉬웠어.

청자 2: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발표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초밥 외의 음식에서 얻는 한계 효용이 절대적으로 낮다면 초밥을 계속 먹는 것이 총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청자 3: 편의점의 예시에서, 만약 사용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궁금해. 아마도 총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빵과 우유의 조합이 달라지지 않을까?

- ① 청자 1은 발표의 내용 전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자가 예시 상황을 일반화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2 모두 발표 근거가 편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 모두 상황을 가정하여 발표 내용에 반응하고 있군.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서영'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활동 1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고 기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해 보자.

활동 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찬우: 지난 시간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기아 문제는 왜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먼저 기아 문제의 발생 이유에 대해 말해 볼래?

서영: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기아 문제가 아프리카 일부 나라에만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책을 읽으며 기아 현상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심지어 동유럽 국가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런 점에서 기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찬우: 서영아, 잠깐만. 지금은 먼저 기아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방금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할 때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서영: 미안해.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 난 기아 문제의 원인이 기아를 겪고 있는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구호품을 유용하고, 심지어 그 구호품을 군사 무기로 교환하여 전쟁을 일으켜 기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잖아.

하윤: 과연 그럴까? 나는 기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 난 이 책에서 '소는 배를 채우고, 사람은 굶는 [A]다?'라는 장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인류 전체를 먹일 수 있을 만큼 많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라 식량을 창고에 쌓아 두고 조금씩만 공급하는 기업들의 이기심과 기아 문제는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기아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서영: 그럴 수 있겠네. 기아의 원인을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내에서만 찾는 것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

찬우: 정리하면, 기아 문제는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정치인들의 도덕성 결여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영: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책에서 확인했겠지만 국제기구들이 자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

하윤: 좋은 의견이야. 그리고 책에서는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사막화의 속도가 빨라

지면 식량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고도 밝히고 있으니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찬우: 정리하면, 사람들에게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기구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는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것과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해당하겠구나.

(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으며 나는 기아의 가장 큰 원인이 기아를 겪고 있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토의를 통해 기아 문제의 더 큰 원인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부 기업들의 이기심과 사람들의 무관심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아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도 존재한다. 이런 점 때문에 기아 문제는 인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아 문제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기구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 역시 기아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알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나는 기아 문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토의를 통해 이러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 우리들의 노력이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안함 속에 살면서 기아 문제가 나오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4. 다음은 '찬우'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 토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토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토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 토의의 흐름과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겠어. 또한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어 참여자들이 토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이 토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하윤’은 ‘서영’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하윤’은 ‘서영’의 의견에 있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 ‘하윤’은 ‘서영’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B]: ‘하윤’은 ‘서영’의 의견에 호응하며 이를 드러내기 위해 그 의견을 재진술하며 요약하고 있다.
- ⑤ [B]: ‘하윤’은 ‘서영’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서영’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 기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내 생각과, 토의를 통해 바뀌게 된 내 생각을 모두 써야겠어. ①

[2문단]
 ◦ 질문의 방식을 통해 문단에서 다룬 중심 내용을 제시한 후,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써야겠어. ②
 ◦ 내가 개진한 의견과 ‘하윤’이 제시한 해결책을 함께 언급하며 우리가 기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써야겠어. ③

[3문단]
 ◦ 나와 ‘하윤’이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아 문제는 특별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존의 나의 생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써야겠어. ④
 ◦ 기아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한 후,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것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 ⑤

7. <보기>는 ‘서영’이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 십시일반으로 다수의 군중들로부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거나 대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최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공적 사업 분야에 활용되어 각광 받고 있다.
- ㉡ 식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로, 손쉽게 많은 양의 물을 옮길 수 있는 Q드럼은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저예산으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적정 기술의 예에 해당한다.
- ㉢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켜져 있는 플러그를 통해 낭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10%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체 가구의 대기 전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000억 원에 육박한다.

- ① ㉠을 활용하여, 기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③ ㉢를 활용하여,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구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어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와 ㉢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8~10] (가)는 건의하는 글쓰기를 위해 학생 1, 2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2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

- 작문 상황: 수행 평가 운영 방법을 글감으로 하여 학교 홈페이지 건의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려고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선생님을 설득하는 글.
- 주제: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행 평가의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우리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나) 글의 초고

학습 내용의 이해 여부만을 묻는 지필 평가에 비해 수행 평가는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학생들은 수행 평가를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큰 평가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수행 평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수행 평가에 불만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우리 학교의 수행 평가가 개인별 평가에 비해 모둠별 평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 평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모둠 활동이 중요한데, 협업 활동을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모둠 활동은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둘째로 수행 평가의 과목별 횟수와 실시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의 수는 10여 개 안팎이다. 일반적으로 한 과목당 수행 평가의 수는 대략 3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에 치러야 하는 수행 평가는 평균 30회 정도가 되어 늘 수행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따른다. 또한 과목별로 수행 평가의 실시 시기가 비슷한데, 특히 학기말 지필 평가를 보기 전에 수행 평가 일정이 몰려 지필 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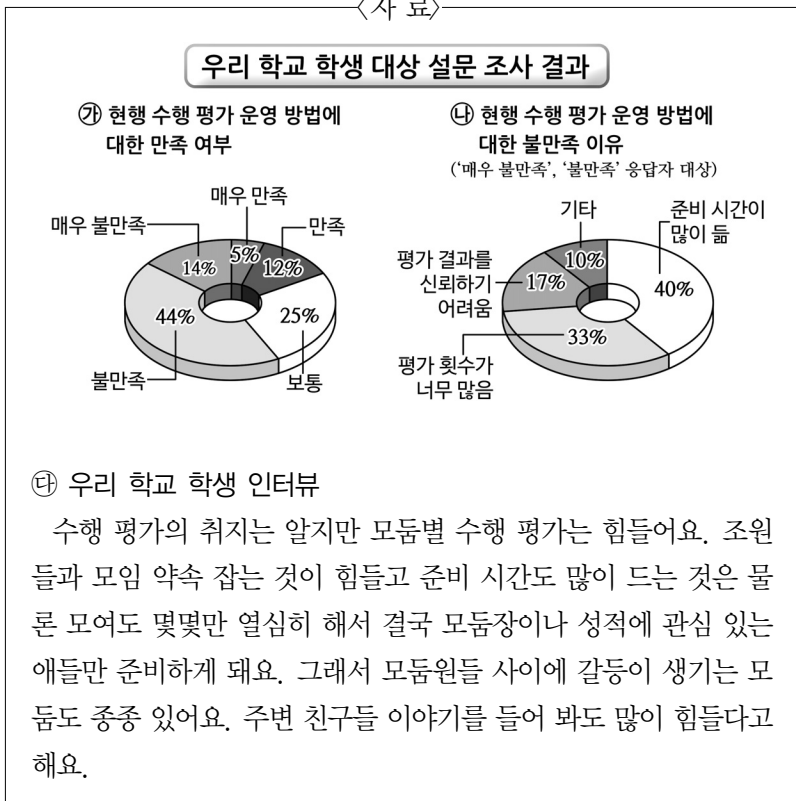
수행 평가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모둠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평가 횟수와 실시 시기의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행 평가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버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현행 수행 평가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8.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타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한 학생의 발언을 인용하여 수행 평가의 단점을 제시하였다.
- ③ 언급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와 인터뷰 문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는 수행 평가의 문제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⑤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행 평가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취지를 수행 평가의 현 실태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9.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 ① ㉠을 활용해, 현행 수행 평가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제시해야겠어.
- ② ㉡를 활용해, 현행 수행 평가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 문제도 있음을 추가해야겠어.
- ③ ㉢를 활용해, 모둠별 평가에서 협업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④ ㉠과 ㉢를 활용해, 현행 수행 평가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제시해야겠어.
- ⑤ ㉡와 ㉢를 활용해, 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평가 횟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10. 다음은 학생 1, 2의 대화를 바탕으로 학생 1이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학생 1, 2의 대화

학생 2: 네 글을 읽어 보니까 마지막 문단이 전체 내용을 정리 하면서 마무리되면 더 좋을 것 같아.

학생 1: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 2: 내가 생각하기에는 ㉠ 삭제하고, ㉡ 추가하면 좋겠어.

학생 1: 고마워, 그렇게 고쳐 보도록 할게.

• 수정된 마지막 문단

수행 평가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모둠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평가 횟수와 실시 시기의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낀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모둠별 협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모둠 평가에서 개인 평가의 비율을 높이는 등 모둠별 수행 평가를 개선하고, 과목 간 실시 시기의 조율, 과목별 평가 횟수의 조정 등을 통해 현행 수행 평가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 ① ㉠: 수행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고충을
㉡: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에 대한 비교를
- ② ㉠: 수행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고충을
㉡: 현행 수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 ③ ㉠: 평가 수단으로서 수행 평가가 지닌 의의를
㉡: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에 대한 비교를
- ④ ㉠: 수행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 평가 수단으로서 수행 평가가 지닌 의의를
- ⑤ ㉠: 수행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 현행 수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11.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가 어제 먹은 고기는 맛이 좋았다.
- ㉡ 나는 내 친구 민우가 왔음을 이제야 알았다.
- ㉢ 운동을 좋아하는 철수는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
- ㉣ 이 책은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 ① ㉠과 ㉡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은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 ⑤ ㉢과 ㉣에는 모두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면서 나는 소리로,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인 조음 위치와 장애를 만드는 방법인 조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나누어진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한 것을 자음 체계라고 하는데,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는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중세 국어에서는 ‘△’와 ‘빙’, ‘ㅇ’, ‘ㅎ’와 같이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이 존재하였으며, ‘ㅁ’, ‘ㅂ’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자음의 조음 위치가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에서 ‘ㅈ, ㅉ, ㅊ’은 ‘ㄷ, ㅌ, ㅊ, ㅍ’과 마찬가지로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齒音)’이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ㄷ, ㅌ, ㅊ, ㅍ’과 달리 셉입천장과 혀바닥 사이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아서 나오는 ‘경구개음(硬口蓋音)’으로 바뀌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ㅈ, ㅉ, ㅊ’은 경구개음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는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 자음을 발음함에 있어서,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그 뒤에 오는 특정 자음과 만나거나 특정 모음과 만나 소리가 날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소리의 변화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를 ‘동화(同化)’라고 한다.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각각 ‘ㅇ, ㄴ,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나 ‘ㄴ’이 ‘ㄹ’의 앞 또는 뒤에서 ‘ㄹ’로 바뀌는 유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동화에 해당하며, ‘ㄷ, ㅌ’이 단모음 ‘ㅣ’나 이중모음 ‘ㅑ, ㅕ, ㅛ, ㅜ’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경구개음인 ‘ㅈ, ㅉ’으로 변화하는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동화에 해당한다.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치]로 발음되는 것도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그는 국물을 놓기 위해 여닫이를 열어 상을 폈다.
- ㉡ 그는 흠이불을 걷은 후에 닫힌 창고를 열어 난로를 꺼냈다.
- ㉢ 그는 업무를 마친 후 책상에 붙여 둔 계획표를 떼었다.

- ① ㉠의 ‘여닫이’는 ‘ㄷ’이 단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여다지]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 ② ㉡의 ‘닫힌’은 ‘ㄷ’이 접미사 ‘-히-’와 만나 [다친]으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 ③ ㉢의 ‘붙여’는 ‘ㅌ’이 이중모음 ‘ㅑ’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부쳐]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 ④ ㉠의 ‘국물’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의 ‘흠이불’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의 ‘난로’와 ㉢의 ‘업무’는 모두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13. [A]를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중세 국어

- 나랏:말뜨·미 中동國·궤에 달·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 꽃 도쿄 여름 하느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제 뜰들 시러 퍼디 못흠
(제 뜰을 능히 퍼지 못하는)

(나) 근대 국어

- 어딤 머물러야 죠흐료
(어디에 머물러야 좋은가)
- 빗최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비추던 것이 모여 소혀처럼)
- 꽃 지는 時節(시절)에 쯔 너를 맛보과라
(꽃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나 보는구나)

- ① (가)에서 ‘도쿄’와 ‘퍼디’의 ‘ㄷ’은 모두 ‘제’의 ‘ㅈ’과 조음 위치가 같았겠군.
- ② (가)의 ‘둥궤’와 ‘못흠’을 보니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 없는 ‘ㅇ’과 ‘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에서 ‘뜰들’을 보니 중세 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이어지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에서 ‘죠흐료’와 ‘빗최던’의 ‘ㅈ’과 ‘ㅊ’은 모두 셉입천장과 혀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 해당하겠군.
- ⑤ (가)의 ‘꽃’이 (나)에서는 ‘꽃’으로 표기된 것을 보니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변하면 해당 음절의 표기 방식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군.

14. 다음은 ‘받다’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이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받다01 「동사」

[1] 【...에서/에게서 ...을】

- 「1」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 「2」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
- 「3」 (㉡)
 ¶ 심사 위원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다.

[2] 【...을 ...에】

-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 ... ㉢
- ¶ 따끈한 목욕물을 욕조에 받다.

받다02 「동사」 【...을】

- 「1」 머리카락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 ㉣
- ¶ 소가 엉덩이를 받아서 다쳤다.

- ① ‘받다01’과 ‘받다02’는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받다02’의 피동사는 ‘받히다’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의 용례로는 ‘편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는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가 들어갈 수 있겠군.
- ⑤ ㉡은 세 자리 서술어인 반면, ㉣은 두 자리 서술어라 할 수 있겠군.

1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 문장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그것이 결합되는 체언이 지니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그 앞의 수 관형사와 띄어 쓴다. 다만 수 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믿을 것은 오로지 (실력뿐 / 실력 뿐)이다.
→ 제41항을 참고하면 ‘실력뿐’으로 붙여 써야 되겠군.
- ② 아이가 비행기를 (저렇게까지 / 저렇게 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
→ 제41항을 참고하면 ‘저렇게까지’로 붙여 써야 되겠군.
- ③ 명주는 (무명만큼 / 무명 만큼) 질기지 못하다.
→ 제42항을 참고하면 ‘무명 만큼’으로 띄어 써야 되겠군.
- ④ 그는 서점에서 책 (두권 / 두 권)을 샀다.
→ 제43항을 참고하면 ‘두 권’으로 띄어 써야 되겠군.
- ⑤ 그의 수중에는 (100원 / 100 원)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 제43항을 참고하면 ‘100원’과 ‘100 원’을 모두 쓸 수 있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각자 다른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이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은 성립할 수 없다. 칸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 영역을 초월한 형이상학을 통해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도덕 법칙은 필연성과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데, 인간의 경험은 필연성과 보편성을 확립하는 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의 정립을 위해 먼저 ㉠물리학, ㉡윤리학, ㉢논리학으로 나뉜 종래의 철학 체계를 분석하면서 물리학과 윤리학은 객체를 인식의 질료로 다루는 이성 인식이고, 논리학은 형식 및 사고의 보편적 규칙만을 다루는 이성 인식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객체란 개별적 존재인 주체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 타인, 사회, 자연 등이 여기에 속하며, 주체는 객체와 접촉하여 경험을 획득한다. 따라서 객체를 인식의 질료로 삼는 물리학과 윤리학은 경험을 수반하는 경험 철학이므로 형식 철학인 논리학과 다르다고 생각한 칸트는 물리학은 자연이론으로 자연의 법칙을 다루고, 윤리학은 윤리이론으로 인간의 의지인 자유의 법칙을 다룬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칸트는 경험을 배제한 선험적 원리에서 철학적 이론들을 개진하는 철학을 순수 철학이라 규정하면서, 순수 철학에는 자연과 자유 같은 제한된 특정 대상을 다루는 형이상학과 순전히 형식적인 논리학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이상학을 자연을 다루는 자연 형

이상학과, 자유를 다루는 윤리 형이상학으로 나누었다. 즉 선험적 원리를 물리학과 윤리학에 적용하여 두 철학에서 경험적 부분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윤리학에서 인간의 경험을 분리하였고, 경험과 분리된 윤리 형이상학에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법칙을 찾으려 하였다.

이처럼 칸트는 도덕 법칙이 경험에서 분리된 선험적인 법칙임을 분명히 하였다. 즉 도덕 법칙들은 모든 경험적인 것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도덕 법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인 인간학으로부터 그 원리를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인간에게 선험적 법칙을 부여한다. 따라서 그는 도덕 법칙의 작용으로 행해진 인간의 모든 윤리적 실천만이 완전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어떤 행위를 할 때 도덕 법칙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위의 결과가 선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우연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완전히 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도덕 법칙을 준수할 수 있을까? 이는 선의지의 실천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의지는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작용하여 도덕 법칙의 실천이 이성적 존재자의 의무라고 납득하는 데서 생긴다. 선의 개념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인간은 자유 의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성과 자유 의지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의무로서의 선의지를 행할 때 도덕 법칙은 준수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칸트는 선의지를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도덕 법칙에 의해 즉시 행해지는 의지이며, 결과나 수단으로서의 선이 아닌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런 선의지의 실천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하였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가 도덕 법칙을 정립한 과정과 도덕 법칙의 준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칸트의 이론에서 발생하는 모순되는 문제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칸트가 윤리학에서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해 그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④ 칸트가 철학의 분류를 위해 제시한 기준에 대해 현실적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고 있다.
- ⑤ 칸트 윤리학의 여러 가지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칸트는 도덕 법칙을 정립하기 위해 윤리학에서 경험을 분리하였다.
- ② 칸트는 인간학으로부터 그 원리를 가져와서 도덕 법칙을 정립하였다.
- ③ 칸트는 도덕 법칙이 인간의 행위를 선험적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했다.
- ④ 칸트는 도덕 법칙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윤리적 실천은 선하다고 여겼다.
- ⑤ 칸트는 도덕 법칙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타당한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객체를 다룬다.
- ② ㉠과 달리 ㉢은 사고의 보편적 규칙만을 다룬다.
- ③ ㉠과 ㉡은 모두 순수 철학에 속한다.
- ④ ㉠과 ㉢은 모두 경험적 부분을 배제하였다.
- ⑤ ㉡과 ㉣은 모두 경험 철학에 속한다.

19.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상당한 적병을 발견한 A는 그가 적이라는 이유로 그를 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뒤이어 적병을 발견한 B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저 없이 그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B를 도와 적병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 ① A는 부상자가 적이라는 점 때문에 이성과 자유 의지가 불일치했겠군.
- ② B는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 이성적 존재자의 의무라고 납득하고 적병을 치료했겠군.
- ③ 목숨을 구한 적병이 포로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결과적으로 B의 행위는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겠군.
- ④ A와 B는 모두 선한 행위를 했지만, A의 행위는 완전히 선하다고는 할 수 없겠군.
- ⑤ A와 B는 모두 이성적 존재자로서 선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고, 자유 의지도 갖고 있겠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아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 오마. 나의 마음의 무너진 터를 닦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宮殿)을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그리고 ㉠ 너의 사나운 풍속을 좇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 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防川)에서 ㉡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훔아 버려라.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너는 나의 병실을 어죽들의 아침을 다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 시.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 놓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새어 가며 기다린다.

- 김기림, 「태양의 풍속(風俗)」 -

(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내 홀로 어디 가라는 슬픈 신호(信號)냐.

긴—여름 해 황망히 날개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夜景)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크러진 채
 ㉤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瓦肆燈)」 -

(다)

우울은 안정적인 정서 상태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슬픔의 감정이 가지지 않고 머무는 상황을 말한다. 19세기에 와서 우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는데 이러한 [A] 시도는 20세기 초 프로이트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았다.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이라는 두 가지 양태를 비교했는데, 우울이 사랑하는 대상 또는 지향점의 상실을 부인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애도는 상실을 인정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우울은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논의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레페니스의 정의이다. 그는 우울을 시민 사회의 도피주의로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울은 실천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유의 세계에만 젖어 있었던 지식인들의 지배적인 성향으로 규정된다.

우울의 정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은 과도하게 커져만 가는데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도달할 수 없는 이상과 떠날 수 없는 현실 사이의 부조화 속에서 우울은 곧 잘 발생한다.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에도 이러한 양상이 드러난다. 화자는 태양을 기다리고, 희망을 기다리지만 지극히 우울한 상태에 처해 있다. 시의 화자는 ‘나의 마음의 무너진 터를’ 지니고 있고, ‘어둠’ 속에 있다. 또한 이 시에는 ‘불결한 간밤의 서리’, ‘나의 병실’ 등 시적 화자의 우울을 의미화한 기호들이 곳곳에 제시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시의 화자가 이상을 표방한 것은 지극히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현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한편 김광균의 「와사등」에는 잔인한 현실에 대한 불안과 동요에서 비롯된 감정이 드러나 있다. 삶의 방향성 상실에서 비롯된 시적 자아의 고독감과 비애는 ‘내 홀로 어디 가라는 슬픈 신호냐’와 같은 구절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이 시에는 ‘긴—여름 해 황망히 날개를 접고 / 늘어선 고층’, ‘공허한 군중의 행렬’,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는 장면 묘사와 같이 회화적 감각을 통해 화자의 우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1.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청자의 속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 부정적인 상황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통해 애도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③ ㉢: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④ ㉣: 대상이 부재하는 현실을 수용하지 않는 화자의 특정 행위를 통해 우울과 애도의 정서를 병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 슬픔의 감정을 부정하는 표현을 토대로 지향점의 상실을 부인하는 우울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시]와 (나)의 [등불]에 대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화자는 '시'를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군.
- ② (가)의 화자는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 놓고' 태양이 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를 통해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군.
- ③ (나)의 화자는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와 같은 장면 묘사를 통해 불안과 동요에서 비롯된 공허한 심정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의 화자는 '등불'의 '슬픈' 속성을 작품의 처음과 끝에서 반복함으로써 우울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나)의 화자는 '등불'을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지시하는 신호기에 비유함으로써 실천적 행동보다는 사유의 세계에 젖어 있었던 당대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의를 ㉠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니 **존자***가 이르기를,
 “내 일찍 수도하여 온 천하 중생의 선악(善惡)을 보았느니라. 이제 네가 효도하여 아버지를 위하는 정성이 지극하여 **극락 서역**이 넓은 바다 수만리 밖이거늘, **부모께 효도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길을 삼아 오늘에야 꼭 올 줄 알았더니 과연 왔도다.”

하며 말하기를,

“이 약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 어머니의 병을 구하라.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다. 전세(前世)에 묘일성신과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금세에 형제가 되어 허다한 곤란과 어려움이 있으나 결국에는 원한을 풀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동자에게 명하여 구슬 같은 약 두 개를 가져다가 성의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약이 **일영주**니 가지고 빨리 돌아가라. 그동안에 혹시 목숨이 다하였을지라도 이 약을 갈아 두세 번을 먹이면 온갖 병이 다 없어 지느니라.”

하고 나가기를 재촉하였다. 성의가 존자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려 백배 사례하고 물리나와 길을 찾아 청산벽계(靑山碧溪)를 지나 내려오니 앞에 약수가 가리어 있었다. 주저하고 있는데 문득 맑고 애뜻한 ㉡ **피리 소리**가 들리거늘, 성의가 서서 바라보니 한 조각 흰 구름이 떠오며 외쳐 이르기를,

“안평국 왕자는 일영주를 얻어오는가?”

하였다. 성의가 답하며 급히 나오니 이는 곧 동방삭이었다. 성의가 재배하고 말하기를,

“선관이 지시하셨으므로 약을 얻어 오게 되었나이다.”

하니 선관이 말하기를,

“그 지극한 효성을 존자께서 감동하셔서 얻어 왔거늘 어찌 나를 칭찬하는가?”

하시며 청하여 ㉢ **파초선(芭蕉船)**에 태우고 말하기를,

“서역 풍경을 모두 구경하려면 칠 년을 머문들 어찌 다 보겠는가?”

하고 순식간에 강변에 다다르니 사공들이 한꺼번에 배를 타고 나와 반겨 맞으며 무사히 돌아온 것을 무수히 치하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또 약 얻은 사연을 듣고 칭찬하여 이르기를,

“우리 대군주는 진실로 천상 선관이십니다.”

하였다. 성의가 파초선에서 내리니 선관이 파초선을 돌려 만경창파에 훌쩍 떠나갔다. 성의가 선관을 향하여 백배 사례하고 곧이어 배에 올라 돛을 달고 나아가니 또 순풍을 만나 배 빠르기가 화살 같은 모습이었다.

차설, 이때 안평국 왕비는 성의를 보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 **병세가** 더해 갔다. 밤낮으로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자주 눈물 흘리며 말하기를,

“십여 세 어린아이가 허탄한 도사의 말을 듣고 어미를 위하여 만리창파(萬里滄波)에 어디로 정처 없이 갔는고? 망망창해(茫茫滄海)의 파도는 매우 세차게 일고, 구름 걸린 산봉우리는 첩첩한데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꼬? 한번 떠난 후로 생사를 알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내 장차 그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 눈을 감을소냐.”

하시며 슬퍼하셨다.

차시에 향의가 **불량한 마음**이 뱃속에 들어 날로 커져 갔다. 마음속으로 헤아리기를, ‘모후께서 성의를 본디 사랑하시거늘 만일 약을 얻어다가 환후가 회복된다면 성의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니 온 나라에 그 아름다운 이름이 진동할 것이다. 그리되면 내 어찌 왕위를 바라겠는가’ 하며 한 계교*를 생각하고 부왕과 모후께 아뢰었다.

“성의를 서역으로 간 지 거의 반 년이 되도록 소식이 까마득합니다. 소자가 도중에 나가 소식을 탐지해 보고, 만일 풍파에 불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소자가 서천에 들어가 약을 구하여 오겠습니다.”

하며 하직을 아뢰고 배를 준비하여 사공과 무예 있는 자 십여 명을 데리고 서천으로 향하였다.

행선한 지 삼 일 만에 **풍파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강변에 닿아 배를 머무르고 밤을 지낼 때 청강수 맑은 물에 가을 달이 돌아 원근에 비추었다. 문득 서쪽으로부터 한 척 작은 배가 나는 듯이 왔다. 항의가 뱃사람들에게 외쳐 말하기를,

“저기 가는 배는 안평국 대군이 타신 배가 아닌가?”

하며 크게 부르고는 의심하여 주저하는데, 그 배가 살같이 다가왔다. 슬프다! 사람의 운수는 하늘이 정하신 것이라 어찌 인력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세자 항의의 불측한 흥계를 성의가 어찌 알리오. 이윽고 배를 돌리어 같은 곳에 대고 보니 이는 곧 세자였다. 성의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바삐 배에서 내려 배례하니 항의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동생이 안개 짙은 파도 속 만리 길을 혼자 간 것이 위태로워서 부왕의 명을 받들어 도중에 와서 맞이하는 것이거니와, 그대가 일영주를 구해 왔는지 모르겠구나?”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세자 항의는 성의가 서천에서 구해 온 일영주를 뺏고, 성의의 눈을 멀게 하여 바다에 빠트린 후, 안평국으로 돌아간다.

각설, 항의가 배를 돌려 돌아올 때 군졸들에게 당부하기를,

“누설하지 말라.”

하고 ㉔ **금은보화**를 많이 주어 심복을 삼아 각각 돌려 보내고 궐내에 들어가 부왕과 모후를 뵈었다. 모후가 묻기를,

“네가 이번에 가서 성의의 소식을 들었느냐?”

항의가 대답하기를,

“소자가 배를 타고 서천을 향하여 칠 일 만에 약수 가에 다다르니 한 선관이 파초선을 타고 오다가 소자를 보고 이르기를, ‘그대는 안평국의 세자가 아닌가?’ 하시기에 소자가 대답하고 배례하였습니다. 선관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왕자진이러니 서천에 갔다가 안평국 왕자를 만났는데 나에게 이르기를, 일영주를 얻었으나 불도에 참례(參禮)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불경에 깊이 빠져 세상사를 잊어버렸으니 어찌 돌아가겠는가 하면서 약을 나에게 전하라 하기에 받아 간수하였더니, 내가 헤아리건대, 안평국 왕이 기다릴 것이니 내가 마침 인간 세상에 나갈 일이 있어 가는 길에 전하고자 가져왔는데 그대를 만났으니 다행하다.’ 하시고, ‘그대는 성의를 생각하지 말고 약을 가져다가 바삐 쓰라.’ 하고 주면서 이르기를, ‘성의는 조금도 자식이라 생각지 말라.’ 하였습니다.”

- 작자 미상, 「적성의전(翟成義傳)」 -

* 존자: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를 높여 이르는 말.

* 계교: 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낸 꾀.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성격 변화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③ 인물을 희화화하여 당대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인물의 꿈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2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방식’은 ‘성의’가 효심이 지극하여 약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 ② ‘존자’는 ‘성의’가 ‘왕비’의 약을 구하기 위해 서역에 올 것임을 미리 알았다.
- ③ ‘왕비’는 ‘성의’가 여행을 떠난 후로 ‘성의’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슬퍼하였다.
- ④ ‘항의’는 ‘성의’가 작은 배에 탔다고 확신하고 소리를 쳐서 강변으로 인도하였다.
- ⑤ ‘성의’는 ‘항의’의 흥계를 짐작하지 못하고 반가워하며 배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적성의전」은 영웅적 주인공이 부모를 위해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약을 구해 온다는 불교 설화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불교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효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치관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길을 떠나는 탐색담, 배필과의 결연을 그린 애정담, 형제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모해담을 핵심적 사건으로 하는 복합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 ① 성의가 약을 얻기 위해 ‘극락 서역’으로 향해 ‘존자’를 만난다는 사실에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불교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성의가 ‘부모께 효도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길을 떠났다는 장면에서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성의가 서역으로 떠나 ‘일영주’를 구하는 것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길을 떠난 탐색담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항의가 왕위를 위해 ‘불량한 마음’으로 성의에 대해 거짓을 고하는 대화에서 형제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모해담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항의가 서천에서 ‘풍파를 만나 거의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약을 가지고 부왕과 모후에게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항의의 영웅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군.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성의’가 ‘존자’를 만나는 장소로, ‘성의’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② ㉡: ‘성의’가 구름을 바라보는 계기로, 자신을 도와줄 ‘선관’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소리이다.
- ③ ㉢: ‘선관’이 ‘성의’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성의’를 강변의 ‘사공들’과 만나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④ ㉣: ‘왕비’의 목숨이 위태로운 까닭으로, ‘성의’가 가족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되는 원인이다.
- ⑤ ㉤: ‘항의’가 ‘군졸들’을 심복으로 만들기 위해 내린 재물로, ‘항의’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재산권이란 법률적으로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법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이와 충돌이 일어난다면, 법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준은 효율성과 공정성이 될 수 있다.

㉠ ‘목장과 농장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자. 목장과 농장이 인접해 있는데,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에서 옥수수를 키우고, 목장주는 자신의 목장에서 소를 방목하고 있다. 목장과 농장의 경계는 명확하지만 울타리가 없어서 소들이 농장으로 들어와 옥수수에 피해를 입히곤 한다. 이 피해는 울타리를 치면 ㉡ 방지할 수 있으나 비용이 수반된다.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농장주가 매년 1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농장에서 울타리를 치면 설치와 관리에 매년 50만 원, 목장에서 울타리를 치면 매년 75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법이 개입하여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다음과 같다.

법안 1. 소들이 농장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으므로 옥수수 피해의 비용은 농장주가 부담한다.

법안 2. 소들이 농장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책임은 목장주에게 있으므로 옥수수 피해의 비용은 목장주가 부담한다.

어떤 법안이 더 나은가? 공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가해를 한 쪽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보기에 법안 2가 낫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농장과 목장의 구분 없이 전체의 효율성을 ㉣ 제고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선호하여 법안 1을 지지할 것이다. 이처럼 적용되는 법안에 따라 권리를 갖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 제도는 소득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 제도가 누구에게 권리를 주는가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라진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이 서로 협상을 하여 합의할 수 있다면 두 법안 간에 효율성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 법안 1을 강제하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법안 2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합리적인 사업가들이 그러하듯이, 목장주는 농장주에게 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할 것이다. 자신이 75만 원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보다 농장주가 50만 원에 울타리를 치도록 비용을 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법 제도가 농장주의 권리를 옹호하지만 협상을 하게 되면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목장주는 50만 원을 내고도 25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반면 자신은 전혀 이득이 없으니 목장주의 이득인 25만 원의 절반을 요구할 것이고, 목장주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결국 협상을 통해 경제적 손실은 줄어들고, 25만 원의 잉여*가 발생하여 농장주와 목장주에게 나뉜다.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면 법안 1이 적용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손해를 막게 되어 두 법안 간에 자원 배분상의 효율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상황에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래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협상을 하는 데는 여러 비용이 ㉢ 수반되는데, 협상에 지장을 주는 모든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 한다. 거래 비용이 0이면 법이 누구에게 재산권을 ㉣ 부여하는지에 상관없이 개인들 간의 협상은 자원 배분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그런데 거래 비용이 잉여보다 높으면 협상이 어려워지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거래 비용이 25만 원을 초과한다면, 법안 2를 강제하는 상황이라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법이 정한대로 목장주가 울타리를 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거래 비용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잉여보다 커지면 법 제도에 따라 자원 배분의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법 제도는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권리 충돌과 관련하여 법이 누구에게 권리를 줄 것인가를 논의하였는데, 권리가 부여된 후 법 제도가 그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선 ‘물권적 보호 원칙’이 있는데, 이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면 그 권리를 교환 내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이는 ‘침해 금지 명령’ 등의 형사법적 제재를 받게 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때 법은 권리 부여를 결정할 뿐, 그 권리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개인적 평가에 맡긴다. 거래 비용이 너무 커서 권리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거나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그 권리를 박탈 내지 침해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손해액의 결정은 국가가 담당한다.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떤 방법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는 개별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잉여: 지불할 돈보다 많은 돈을 벌거나 적게 지불하여 남는 돈.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사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를 갖추고 있다.
- ② 법 제도가 특정 대상에 재산권을 부여할 때는 공정성과 효율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③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권리 충돌이 일어나면 형사법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민사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 ⑤ 법 제도에서 물권적 보호 원칙을 마련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

28. ㉠의 입장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안 1을 따라야 할 것이다.
- ② 공정성을 중시하는 법안을 따른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 ③ 거래 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④ 법안에 상관없이 서로 협상을 하여 합의해야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거래 비용이 없다면, 법안 2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해 농장에서 울타리를 치게 될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농장주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 울타리는 (㉢) 효율적이므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목장주는 피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① ㉡: 손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 목장에서 치는 것이
- ② ㉡: 손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 농장에서 치는 것이
- ③ ㉡: 손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 치지 않고 100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이
- ④ ㉡: 목장주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고
 ㉢: 농장에서 치는 것이
- ⑤ ㉡: 목장주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고
 ㉢: 치지 않고 100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이

30. 윗글로 볼 때, <거래 비용>과 <법 제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래 비용이 잉여보다 높으면, 법 제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모두에 영향을 준다.
- ② 거래 비용에 상관없이 법 제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준다.
- ③ 거래 비용이 없어 협상이 이루어지면, 법 제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거래 비용이 잉여보다 높으면, 법 제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거래 비용이 없어 협상이 이루어지면, 법 제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멘트 공장의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해 ○○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공장을 폐쇄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공장을 폐쇄하는 중지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공장에 주민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판결하였다.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공장의 투자 비용이 사라지고 종업원들이 실직하는 등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① 법원이 주민들의 권리에 물권적 보호 원칙을 적용하면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 ② 법원은 공장주와 주민의 권리 충돌 상황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 ③ 법원은 이해 당사자들이 제시한 권리의 개인적 평가를 절충하여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 ④ 법원은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한 권리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 배상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 ⑤ 법원은 공장 폐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공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3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막을 ② ㉡: 높일
- ③ ㉢: 커지는데 ④ ㉣: 주는데
- ⑤ ㉤: 이르게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귀라 구(求)치 말고 빈천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 백년이 한가할사 사니 이 내 것이
㉠ 백구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忘機)* 하오리라 <제1곡>

천심 절벽 섰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로 버즐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난 몰나 하노라 <제2곡>

보리밥 파 생채를 양(量) 맛좌 먹은 후에
초가집을 다시 끌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엇시니
눈 압해 넓은 하늘 떠있는 구름이 오락가락 하노라 <제3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난 달에 혼자 우난 저 ㉡ 두견아
낙화 광풍에 어나 가지 오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저 가막이 좃지 말아 이 가막이 좃지 말아
야림 한연*에 날은 초차 저물거날
어엿불사 편편 고봉(翩翩孤鳳)*이 갈 바 업서 하낫다 <제5곡>

서산에 해 저 간다 고깃빅 씻단 말가
대나무 낚시대를 들너 피고 십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안개가 피어오르는 수삼 어촌(數三漁村)이 무릉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 야림 한연: 들관 숲속의 차가운 안개.
-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나)

정소남이란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묻지 아니하니 타죽에게 짓밟힌 땅에 개결(慨潔)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란다.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 환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노릇 이리오마는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長技)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淸高)한 심경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란 사람이 일생을 거의 삼분의 이나 살아온 처지에 아직 까지 나 자신이 환장인지 예술가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딱 하고도 슬픈 내 개인 사정이거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예술가답게 살아 보다가 죽자고 내 탄엔 굳은 결심을 한 지도 이미 오래다. 되도록 물욕과 영달에서 떠나자, 한묵(翰墨)으로 유일한 벗을 삼아 일생을 담박하게 살다 가자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면 소원이라 할까.

이 오죽잖은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시혹(時或) 그림 장이나 그려 달라는 부질없는 청을 받는 때가 많다. 내 변변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塗抹)해 보내는 수도 없지 아니하니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제(畫題)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계를 그리는 것이다.

계란 놨은 첫째 그리기가 수월하다. 긴 양호(羊毫)에 수묵을 듬뿍 묻히고 호단(毫端)에 초목을 약간 찍어 두어 붓 좌우로 휘두르면 앙버티고 엷드린 꼴에 여덟 개의 긴 발과 양증스러운 두 개의 집게발이 즉각 하얀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그려 놓고 보아도 붓장난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다. 그러고는 화제(畫題)를 쓴다.

庭寒雨滿汀秋 뜰에 가득 차가운 비 내려 온통 가을인데.
得地縱橫任自由 제 땅 얻어 종횡으로 마음껏 다니누나.
[A] 公子無腸眞可羨 창자 없는 계가 참으로 부럽도다.
生不識斷腸愁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네.

역대로 계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라만 내가 쓰는 화제는 십중팔구 윤우당의 작이라는 이 시구를 인용하는 것이 항례(恒例)다.

왕세정의 ‘橫行能幾何, 終當墮人口(횡행능기하 종당타인구, 마음껏 옆으로 기어간들 얼마나 갈 것인가, 결국에는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인 것을)’ 하는 대문(大文)도 묘하기는 하나 무장공자(無腸公子)로서 단장(斷腸)의 비애를 모른다는 대문이 더 내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人士)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맑은 동해변 바위틈에서 미끼를 실에 매어 달고 이 해공(蟹公)을 낚아 본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 채 앓다가 콩알만큼씩한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곁두리를 보아 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미끼를 뺏느라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추켜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利)가 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척 동정이 가고, 밍살스레 보면 가증(加憎)하기 짝이 없는 놈!

계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거니와 또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 김용준, 「계」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통해 삶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 ③ (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과거의 체험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생 백년’을 한가하게 사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화자가 소망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보리밥 파 생채’를 알맞게 먹는다고 함으로써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는 ‘환’의 의미가 ‘작가의 청고한 심경’을 드러낼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작가가 지닌 예술관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물욕과 영달’을 떠나 ‘담박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함으로써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계’를 그리며 ‘붓장난’의 ‘묘미’를 느꼈던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작가 자신이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군.

3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은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소재이다.
- ② ㉠은 화자의 내면세계를 상징하는 소재이며, ㉡은 화자의 과거 생활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현재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이며, ㉡은 화자의 현재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며, ㉡은 화자가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⑤ ㉠은 화자가 처했던 과거 현실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이며, ㉡은 화자가 위치한 현재의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병산육곡」은 작가가 당쟁(黨爭)이 극심했던 시절, 벼슬길을 떠나 자신의 고향 마을인 안동의 ‘병산리’로 낙향(落鄕)을 한 후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혼탁한 정치 현실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자연을 벗 삼아 안분지족하는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제1곡>에서 ‘부귀’를 추구하지 말고 ‘빈천’을 꺼리지 말라고 하는 화자의 말을 통해 안분지족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작가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제2곡>에서 흘러가는 ‘일대 장강’에서 어부의 삶을 살며 ‘세간 소식’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화자의 말을 통해 속세보다는 자연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제3곡>에서 속세가 있는 ‘북창하’에 누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제5곡>에서 갈 곳이 없는 ‘편편 고봉’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은 당쟁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작가의 현실과 관련이 있겠군.
- ⑤ <제6곡>에서 ‘대나무 낚시대’를 메고 모래밭에 내려가 바라본 ‘수삼 어촌’의 풍경이 ‘무릉’과 같다고 말하는 화자의 말을 통해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게들이 다니고 있는 ‘뜰’은 ‘타족에게 짓밟힌 땅’과 대응하여 글쓴이가 느끼는 상실감을 심화시키는 장소라 볼 수 있겠군.
- ② [A]의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을’은 ‘동족상쟁’의 비극이 일어나는 시간에 해당하여 글쓴이의 비애감을 유발하는 계절에 해당하겠군.
- ③ [A]에서 뜰을 ‘제 땅’인줄 알고 마음껏 다니는 게의 모습은 ‘영리한’ 체하는 게의 모습과 대비되어 글쓴이가 게를 ‘눈치 없는 미물’이라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군.
- ④ [A]에서 ‘창자 없는 게’가 부럽다고 말하는 시인의 정서는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의 모습과 동일시되며 글쓴이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군.
- ⑤ [A]의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는 ‘게’에 대한 진술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인사(人士)를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글쓴이가 이 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되고 있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음성 인식 번역 어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음성 인식 번역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단계를 ㉠ 거친다. 이때는 주로 패턴을 이용한다. 특히 인식 대상 어휘가 적을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 패턴 정합 방식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발음할 때마다 발음 시간이 종종 다르게 나타나 단순히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을 비교하면 종종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패턴 정합 방식 중 발음한 전체 시간을 기준 패턴과 같게 설정해 비교하는 선형 정합 방식을 쓰기도 하고, 선형 정합 방식을 통해서도 오류가 발생하면 음성의 정점 부분의 시간까지 기준 패턴과 일치시켜 비교하는 동적 정합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후에는 기계 번역 단계를 거친다. 기계 번역이란 컴퓨터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서 출력하는 과정으로 크게 통계 기반 기계 번역과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모두 딥러닝을 활용한다. 즉 사람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컴퓨터는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이 끝나면 번역기가 스스로 공부한 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보더라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준다. 현재는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이 주류이지만, 최근에는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도 주목받고 있다.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학습된 통계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통계적 모델이란 단어나 구문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저장하여 만든 일종의 번역 사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이를 단어나 구 단위로 나눈 뒤 통계적 모델을 바탕으로 가장 본래 의미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번역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인 것이다. 예전에는 단어 단위마다 번역해서 조합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최근에는 구 형식 기반 번역으로 발전했다. 구 단위가 단어 단위보다 모호성이 낮아 더 나은 번역 품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방식이 ‘계층적 구 기반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구 기반 방식이 ‘eat apple’, ‘eat grape’를 서로 무관한 관계로 보고 각각 ‘사과를 먹다’, ‘포도를 먹다’로 단순히 번역했다면, 계층적 구 기반 방식은 이들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eat X = X를 먹다’로 종합해서 표현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대역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만 해도 한국어-일본어처럼 어순이 비슷한 언어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어-영어처럼 어순이 다른 경우에는 올바른 배열 조합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순서 변경’을 거쳐야 한다. 이는 언어의 어순을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의 어순과 유사하게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을 ‘나는 먹는다 사과를’로 변형한 뒤 ‘I eat apple’로 바꾸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높인 번역 기술이다.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딥 러닝 기술이 적용된 엔진을 통해 전체 문맥을 파악한 다음, 문장 내에서 단어, 배열 순서, 문맥에서의 의미 차이 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쓰다’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자. 이때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 시스템은 ‘쓰다’와 관계있는 ‘썼다’, ‘쓸 것이다’, ‘쓰고 싶다’ 등의 표현들을 함께 고려한다. 이와 더불어 ‘쓰다’라는 단어를 다양한 차원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쓰다’는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다’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일기’, ‘연재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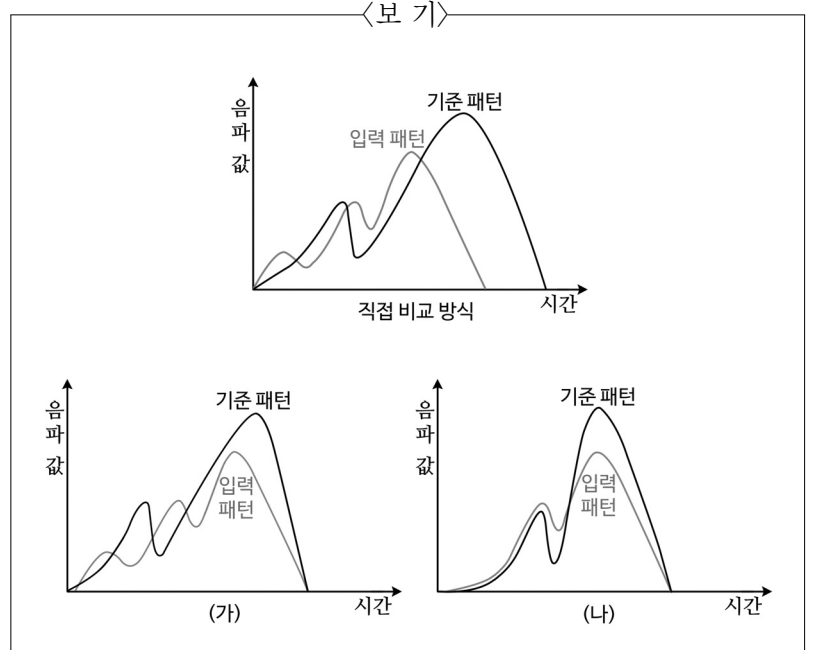
[A] 등의 단어와 관계를 맺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모자’, ‘가발’ 등의 단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처럼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쓰다’라는 하나의 단어를 번역할 때에도 문맥을 비롯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다.

이 때문에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이 통계적 기계 번역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번역 시스템은 더 단순한 편이다.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만 있으면 알아서 학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확장하기 쉽고 다양한 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통계 기반 기계 번역보다 학습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한다.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과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다.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은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보다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
- ②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은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과 달리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번역이 진행된다.
- ③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번역 방식이다.
- ④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높인 기술이다.
- ⑤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은 통계 기반 기계 번역보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39. ㉠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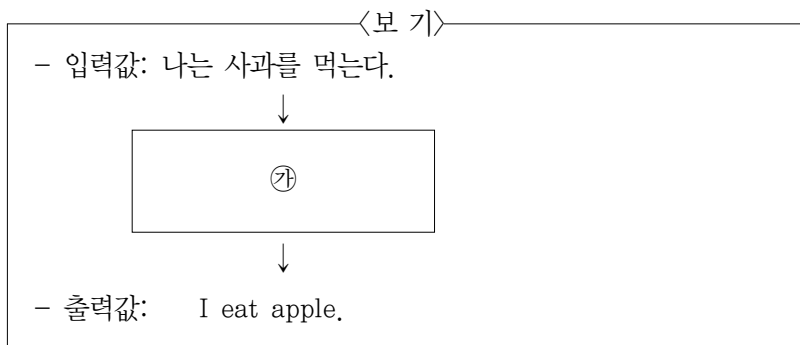


- ① (가)는 입력 패턴의 발음 시간을 기준 패턴의 발음 시간과 맞추어 비교하는 방식이다.
- ② (나)는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각각의 정점에 해당하는 시간이 같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 ③ (나)는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의 전체 발음 시간을 같게 맞추어도 정확하게 비교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인식 대상 어휘가 적을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발음 시간이 상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40. 밑글을 바탕으로 ‘계층적 구 기반 방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축구를 한다’라는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할 경우 먼저 ‘나는 한다 축구’와 같이 어순을 변환한다.
- ②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이를 ‘나는’, ‘밥을’, ‘먹었다’와 같이 나눈 뒤 번역한다.
- ③ ‘take the baby = 아기를 안다’와 ‘take the jacket = 재킷을 사다’의 경우 ‘take X’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④ ‘나는 너를 사랑한다’와 ‘I love you’와 같이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만 있으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 ⑤ ‘play the piano = 피아노를 연주하다’라는 문장과 ‘play the violin = 바이올린을 연주하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들의 관련성에 주목할 것이다.

41.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 해당하는 과정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I', 'apple', 'eat'의 배열 순서를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한다.
- ② '나는'을 번역할 때 '나'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I', 'my', 'me' 등의 단어를 함께 고려한다.
- ③ '먹는다'를 번역할 때 이와 함께 사용된 '사과(를)'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문맥을 고려한다.
- ④ '나는 먹는다'와 '사과를 먹는다'라는 구를 바탕으로 'I eat apple'이라는 문장을 도출한다.
- ⑤ '먹는다'를 번역할 때 이와 관계있는 '먹었다', '먹었니?', '먹고 싶다' 등의 표현을 함께 고려한다.

42. ㉠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입학 후 삼 년을 거쳐 오는 동안 그녀는 많이 변했다.
- ② 그의 눈앞에 하얀 평원이 거칠 것 없이 펼쳐져 있었다.
- ③ 몇 번의 협의를 거치면 학급의 친구들도 동의할 것이다.
- ④ 신원 조회를 거쳐 경찰이 되기까지 긴장을 풀지 못했다.
- ⑤ 이번 일은 조만간 실사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으로 된 파자마의 목둘레가 맞지 않아 뼈만 남은 어깨까지 드러나 보이는 게 무참했다. 나는 뭐라고 말하는 대신 이불로 그것을 가려주다가 말고 목과 어깨뼈 사이가 앙상하다 못해 너무 깊이 파인 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공지에 물린 것처럼 마지못해 이분이 너무네 아저씨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을 뺀 골격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려면 그 무참히 파인 곳을 보자 나는 불현듯 앞뒤로 번쩍번쩍 빛나는 자물쇠를 주렁주렁 늘이고 다닐 때의 너무네 아저씨를 떠올렸다. 너무네 아저씨가 월남해서 처음 잡은 직업이 자물쇠 장수였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자물쇠 공장도 없을 때라 그의 상품도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었다. 특히 미군 부대를 통해 흘러나온 미제 자물쇠는 값도 비싸고 이윤도 많았다. 너무네 아저씨는 이런 중고 낫쇠 자물쇠를 특수한 약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끈이 달린 조끼 비슷한 방수천에다 앞뒤로 빈틈없이 달아매고 장사를 나섰다.

나의 어린 눈에 그런 너무네 아저씨는 마치 가슴에 훈장을 하나 가득 달고 백만 대군을 사열하러 나가는 장군처럼 위대해 보였다. 앞뒤로 낫쇠 자물쇠가 금빛으로 반짝거리서만은 아니었다. 너무네 아저씨의 하늘을 찌를 듯 기고만장한 몸짓과 어떤 긍지 때문이었다. “내가 누구 땀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 자식 뿌리치고 대신 데리고 나온 내 장조카, 우리 홍씨 문중의 종손, 성표놈 하나 공부 잘 시켜 성공하고, 손 퍼뜨리는 거 볼 욕심 하나야, 다른 거 없어. 시체 젊은이들은 내 마음 몰라줘도 지하에 계신 조상님네들은 다 아실 거 구먼.”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과연 자기 아들을 뿌리치고 장조카만을 데리고 월남한 게 그렇게 잘한 일일까 하는 의문을 품는 것조차 그의 앞에선 나쁜 마음처럼 죄스러웠다.

그가 하찮은 자물쇠 행상을 하면서도 무훈이 혁혁한 장군처럼 당당하게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도덕적인 만족감 내지는 도취감 때문이었다. 그는 그 도덕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의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를 어찌다 내비치는 적은 있었지만, 그 도덕 자체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재고해 본 적은 한번도 없으리라. 그의 당당함이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가 그의 장조카이자 홍씨 문중의 귀중한 종손인 성표 형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뿌리쳐야만 했던 그의 친아들 은표는 나하고 동갑내기였다.

<중략>

“아저씨,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아저씨.”

나는 아저씨가 입을 괴롭게 쭈긋대는 게 암만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또 다시 이렇게 악을 썼다. 입만 아니라 멍청하던 눈에도 초점과 빛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감정 표현도 힘에 겨운 듯 이불 밖으로 나온 앙상한 손이 꿈틀꿈틀 경련을 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멀건 죽남비를 갖고 들어와 노인의 쭈긋대는 입에 퍼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 그는 이를 악물면서 도리질을 했다. “에그머니, 이제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웠나 봐. 곡기 끊으면 죽는다는데…….”

아주머니가 경망스럽게 숟갈을 내던지며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확신을 얻고, 그의 경련치는 손을 잡고 애타게 외쳤다.

“아저씨, 너무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네, 너무네 아저씨,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윽고 아버씨의 손에 힘이 쥐어지는 듯하더니 입놀림이 확실해졌다. 나는 그의 멍청하던 눈에 그윽한 환희가 어리는 걸 똑똑히 보았고 그의 입이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은표야, 아아, 은표야.”

아버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씨가 그의 아들을 뿌리치고 대신 조카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뒤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은표의 단짝이었던 나를 보면 은표도 어느 하늘 밑에 죽지 않고 살았으면 저만할 텐데 하고 비감하는 눈치라도 보일 법한데, 한 번도 그런 적조차 없었다. 그는 **아들을 뿌리**침과 동시에 아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렸을 뿐더러, 아예 기억에서 지우고 사는 사람 같았다. **아들 대신 장조카 데리고 피난 나왔다고 자랑**할 때의 아들도 보통 명사로서의 아들이지 은표라는 고유 명사로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입에 올린 은표 소리는 나만 겨우 알아들을 만큼 희미했다. 그러나 내 귀엔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아, 삼십여 년 전 은표 어머니의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제서야 양끝음을 완수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길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 왔을 터인데도 왜감보다는 허망함에 소스라쳤다.

다시 열쇠고리 장수가 늘어선 거리로 나왔을 땐 해가 누엣누엣했다. 해가 누엣누엣할 무렵이면 가슴에 하나 가득 갖가지 자물쇠를 늘인 채 봉지 쌀과 자반고등어를 사들고 뒤통뒤통 걸어오던 **너우네 아버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봉지 쌀과 자반고등어 때문인지 자물쇠가 훈장으로 보이는 엉뚱한 착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외롭고 초라한 자물쇠 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직시할 수 있기까지 자그마치 서른 두 해가 걸렸던 것이다.

- 박완서, 「아버씨의 훈장」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아버씨’와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② ‘나’는 ‘아버씨’의 말을 들은 후에 기대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에 놀라고 있다.
- ③ ‘나’는 ‘아버씨’의 양상하게 마른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아버씨’는 ‘나’와의 만남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에 대한 의지를 비로소 되찾고 있다.
- ⑤ ‘아버씨’는 다른 젊은이들과는 달리 ‘나’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4. **훈장**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훈장은 종손을 키우는 아버씨의 자부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훈장은 외롭고 초라하게 지내는 아버씨의 현재의 모습과 대비된다.
- ③ 훈장은 아버씨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며 ‘나’가 일으킨 착각이라 할 수 있다.
- ④ 훈장은 아버씨가 자물쇠를 금빛으로 닦아 가슴에 하나 가득 달고 다니는 모습과 관련된다.
- ⑤ 훈장은 아버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간적인 고뇌를 보인 적이 없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표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완서는 「아버씨의 훈장」에서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자 중심의 가부장제로 인한 모순을 그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결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 인물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의 회복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은표야, 아아, 은표야’라는 말을 통해, 아버씨가 장조카를 지키기 위해 데리고 오지 못한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만든 ‘피난’은 전쟁으로 인한 것으로, 전쟁이 개인의 삶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아들을 뿌리’켰던 아버씨의 행동은, 혈통의 보존을 무엇보다도 중시했던 가부장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아들 대신 장조카 데리고 피난 나왔다고 자랑’했던 아버씨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결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군.
- ⑤ ‘나’에게 과거 ‘너우네 아버씨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그동안 아버씨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